

화재로 인한 간접피해의 중요성

안전사고 발생시 눈에 보이는 손해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말을 산업안전관리분야에서 흔히 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즉 직접피해는 사고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 내지는 조업중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피해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관리의 한 분야인 화재사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될 때마다 관계 당국에서는 건물, 기계, 동산과 같은 대략적인 피해액만 발표하고 있어서 막상 간접피해는 해당 기업체나 관계당국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피해에 대하여 미국의 Factory Mutual System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73년도 미국의 매 국민당 화재피해액(직접피해)은 14.66 달러였으나 간접피해를 고려하면 1인당 피해액은 약 3.9배인 57.14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미국의 "일리노이즈"공과대학에서도 화재로 인한 간접피해는 직접피해의 다섯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26년 미국의 Travelers Insurance CO의 안전기사였던 Heinrich氏는 많은 재해사례를 기초로 하여 통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 및 간접피해의 비율은 1:4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발표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손해로 인한 피해는 직접손해에 대하여 평균 4~5배 정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간접피해로서 예상할 수 있는 주요한 피해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생산감퇴에 따른 매상 손실과 휴업으로 인한 노동 임금의 지불
- 화재시 소화작업에 쓴 경비와 재해를 당한 뒤에 정리 비용
- 주주, 고객, 사회 등으로 부터의 신용 상실
- 광고효과의 상실
-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장부 또는 기록

등이 있으며 또한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체가 화재로 손실되거나 생산이 감소되었을 경우 재해를 당한 공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타기업체까지 원료 또는 반제품의 공급차질로 인한 2차, 3차 피해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앞에서 언급한 피해액을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재해발생시의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피해 이상으로 막대한을 기업체는 인식하고 대형 화재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특수건물과 주요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직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유주나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